

‘제대로 된 역사’ 쓰려는 ‘비리 전문’기자

약력

1962 전북 군산생
 서울대 지리교육학과 81
 88년 동아일보 입사
 92년 1월~93년 말 법조팀
 94년 1월~95년 6월 경제부
 (무역협회/코트라, 전경련, 상공부, 농림부, 증권 등 여러 곳)
 95년 6월 사회부 법조팀
 96년 사회부 건설교통부
 97년 3월 사회부 법조팀
 98년 2월 정치부 총리실, 새천년 민주당 출입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최다수상 (6회)
 한국기자상 수상 (1997년)
 저서 : 도둑공화국 권력과 재벌의 한판 잔치(공저), IMF에서 칼국수까지



수상내용

이달의 기자상
 18회(92년 2월) 김태춘 비호세력 비망록 관련보도 (취재보도) 윤상삼외 3명
 57회(95년 5월) 이형구 전 노동부장관 수뢰구속 (취재보도)
 66회(96년 3월) 전두환 전대통령 5공산당 창당기도 및 정치인 언론 상대 980억 살포 (취재보도) 양기대외 4명
 81회(97년 5월) 김현철씨 비리 수사과정에서 이성호씨 추적기사 (기획보도)양기대 외 7명
 90회(98년 3월) 의정부 판사들 금품 수수비리 (취재보도) 양기대 외 2명
 98회(98년 10월) ‘판문점 충격 요청사건’관련보도(취재보도) 양기대 외 3명

29회 한국기자상 (97년 8월) 김현철 비리 수사과정에서 이성호씨 추적기사 (기획보도부문) 사회1부 법조팀

가족

현재 중학교 선생님인 초등학교 동창 이소원 씨와 결혼한지 12년. 자녀 현민(12)과 현지(9)

기자는 특종과 속보 경쟁을 해야하는 한편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 두 쪽을 모두 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고위 관료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고급정보에 아예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취재원과 가까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비판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저더러 정보와 비판 가운데 어느 한쪽을 무조건 택하라고 한다면 후자를 택하고 싶지만 그런 경우 무능한 기자가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느냐가 기자의 숙명이고 대한민국의 언론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상’ 가장 많이

양기대 기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가장 많이 받았다. 특종 비결을 ‘취재원과의 인간 관계에 신경쓰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혼신을 다해 끝까지 사건의 전말을 캐내는 추적보도의 자세일 것이다.

그는 92년도부터 검찰에 출입하기 시작했는데, 법조팀으로 간지 얼마 안돼 당시 문제가 되었던 김태춘이라는 조직폭력배 대부에 관련된 재판기록을 며칠동안 끈질기게 파헤쳐 검찰내의 비호세력에 문제제기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때 첫번째 기자상을 받았었다.

그후 경제부의 여러부처를 돌다가 다시 95년도에 사회부로 가게 됐는데 이번에도 법조팀이었다. 그런데 당시 이형구 노동부장관 수뢰사건을 특종보도해 두 번째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고, 한국기자상 최종후보까지 올랐었다.

“검사들이 외압이나 정실에 치우쳐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할 때 출입기자로서 이를 과감히 비판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부터 외부의 압력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정론을 펴는 기자가 되어야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후 일명 ‘컴퓨터 대자보’ 사건 때문에 법조팀을 떠나 건설교통부로 옮기게 된다. 양기자가 법조 현장 반장당시, 노태우 전대통령이 대우, 동아, 대림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거액을 받았다는 1면 톱기사를 썼다. 그런데 막상 다음날 신문에서는 ‘동아, 대우’는 빠져있었다고 한다.

“누가 신문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겠어요. 아예 뺄 것이면 다 빼든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 팀은 편집국장과 사회부장 앞으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회사 컴퓨터에 띄웠습니다. 전파의 속도만큼 이 문제는 파급속도가 빨랐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결국 사회부 다른 부처들을 돌게 됐습니다.”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



양기대 기자는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다. 법조팀에서 오래동안 같이 일해온 동료 이수형기자의 말을 빌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하지만 정의감이 유난히 강합니다. 상대가 청와대 비서실장이든 검찰 간부든 가리지 않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움도 많이 하는 편이지요.”

몇 년전까지만 해도 양 기자 별명은 ‘력비공’이었다고 한다. 력비공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단단한 공이라는 의미로 어디서나 바른말을 거침없이 하는 것 때문에 붙은 것이다. 이젠 력비공에서 바람이 많이 빠져 ‘축구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선배로서의 연륜이나 위치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97년 김현철 씨 비리관련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받았는데, 이 때도 단순히 검찰 발표만 가지고 기사를 쓰지 않고, 나름대로의 정보망을 가지고 취재를 했고, 철강관련 사안이 있을 때는 부산, 포항가서 추적 취재를 하고 이성호 대호건설 사장을 추적하기도 하는 등 발로뛰어 기사를 썼다고 한다.

당시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가 있다.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심재륜 씨와 알게된 지 10년이 됐는데 그분은 권력의

로부터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매일 밤 저와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밤마다 폭탄주를 적게는 5잔 많게는 10잔씩 마셔가면서 행여 무슨 정보라도 얻을까 했는데 그 분은 입이 워낙 무거워서 아무 얘기도 안해주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일종의 특권처럼 보였을 거예요. 뉴스메이커인 중수부장과 매일 만나서 저녁 먹고, 술 마시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그 사람은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몸만 축내고 결국 특종은 하나도 못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기자생활 하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었냐는 물음에 양기자는 서슴지 않고 ‘많다’고 대답한다.

말로하는 비판도 기자 몫

“우선 기자니까 기자로서만 사물을 보고 글을 써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지요. 꼭 써야할 때 안 쓰는 경우가 어쩔수 없이 있고, 사내에서도 바른말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했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일례로 옷로비 사건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김태정 전 법무장관과 매우 친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상당히 인간성은 좋지만 권력 지향적인 법조인이어서 비판하고 충고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지만, 친하다보니까 정면으로 비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독하게 마음먹고 과감히 비판했어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제 양심에는 거리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취재원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의 소신은 확고하다. “기자는 두가지 역할을 해야합니다. 하나는 나름대로 취재해서 글로 써서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취재원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때로는 말로도 할 수 있는게 있거든요. 기사거리는 안되도 이런 점을 고쳐달라 등 조언과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건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

그래서 좋은 기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로 사물에 대한 통찰력, 비판의식, 균형감각이라고 한다. “물론 병행해서 취재도 잘하고 기사도 잘 써야 합니다. 제 자신은 부족하지만 우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서민과 못가진 자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가 된 계기에 대해 물었다. “대학다니는 때 군사독재의 초창기였고 젊은이들이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군대도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살면서 그런 부담감, 자책감이 항상 있었고,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것은 언젠가는 이런 부채를 갚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뭘 할 방법이 없을까해서 3학년 때 기자가 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독재정권을 비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언론이 바로 서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인터넷도 잘 모릅니다”

고교시절때부터 친구인 윤경호 씨(매일경제 기자)는 양기자를 ‘열혈청년’이라고 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리더십이 있었고, 조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도 독특했는데,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운동하려면 서클같은데 소속되어있으면서 활동했는데, 그 친구는 전혀 그런 활동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때 자기 혼자서 노동현장을 경험하러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로서도 그에게는 경외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도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편입니다. 물론 고쳐야할 점은 있지요. 사람이 너무 곧으면 부러질 수 있는데 조금 더 유연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력 10년이 넘어 잘 하고 있을거라 믿고 있습니다.”

양기자와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닌 필자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학생운동에 참여하든 안하든,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 한번쯤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학생은 없었을 것이다. 그때 이렇게 썩은 사회에서는 사회운동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본분은 지키면서 젊은 시절의 올바른 생각을 졸업 후에까지 가지고 있다가 사회에 나가서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운동가라는 말을 누군가가 했었다. 아무리 학생시절에 혼신을 다해 운동을 해도 사회에 나가서 제도권에 편입하면 그때의 정신은 잊기 쉽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그렇게 변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양기자가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부채로 여기고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다.

현재 언론사들이 안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는 명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든 정도를 걷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최근 벤처로 학계로 기자들이 많이 떠나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한다. “근본적으로 언론사에서 사명감과 기자정신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장담할 수 없지만 우선 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겠죠. 누구든 제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떠날 때 마무리를 잘해야겠죠.” 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하는 만큼 양 기자는 변화하는 언론환경에도 고민을 많이 한다. “부끄럽게도 21세기 기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인터넷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디지털 시대인데, 아날로그 시대의 마인드로 신문을 만들고 기자생활을 하면 안되겠다는 자성은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도 유권자들의 사이버상의 참여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투표행위로 연결돼야겠는데, 과연 그 사람들의 비판의식이 투표에 반영될지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고, 제가 봐도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사명감을 가진 의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공천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는지도 의문이지만 공천된 사람들 중 국민들이 얼마나 옥석을 가릴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지역 감정, 정면 보도해야

언론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기자 한사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입처 제도라는 언론 관행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관행의 폐단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이것은 한 명의 기자 혹은 일개 신문사에서 나선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울러 전체 사회의식도 같이 변해야 가능합니다.”

기자들이 취재일선을 빨리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맥락이다. “기사를 가장 원숙하게 쓸 수 있는 40대가 되면 차장, 부장이 되어 신문사 내에 들어와 앉게 됩니다. 불합리하지만 우리사회 정서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취재원의 입장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이 취재해가는 것에 익숙치 않고, 기자도 자신보다 어린 취재원에게 다가가서 수첩을 꺼내놓고 꼬치꼬치 묻는 것이 어쩐지 어색합니다. 또 신문사 조직이 관료적이다 보니까, 만일 후배가 데스크를 보고, 선배가 나가 취재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도 수용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들 한다는데, 차츰 우리도 개선이 돼야겠지요.”

최근 지역감정 보도 자제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 물었더니, “우리 국민의식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고, 계속 발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사실보도를 할 수 있다면 굳이 지역감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막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정면으로 다루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기자의 몫이 아닐까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늘 하시는 말씀이 한국은 검찰과 기자가 제 역할만 하면 나라의 중심이 선다는 것입니다. 법조계는 법을 통해 원칙을 적용하고, 언론은 감시와 비판을 하면서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면 부정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장 기자가 눈치 보지 않고, 바른 말 바른 글을 쓰고, 언론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은 언론의 정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양식을 지키면 언론도 그 누구로부터 지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언론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시다만...” 세 번이나 사회부로 되돌아 갔고, 또 사회부 시절 활약을 들여보니 혹시 양기자는 사회부가 가장 맞는 기자가 아닌가 해서 물었다. “어떤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부든 정치부든 기자로서 기본 자세나 양식은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곧 비판이라고 한다. “현정 권조차도 정면비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의 반응을 보일때 마다 권력의 속성은 같은 것 이구나하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기자는 어떤 권력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와 비판을 해야 합니다.” 사람과 권력의 성숙도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자꾸 정면으로 바른 소리를 듣고 지적받다보면 성숙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역사’ 쓸 것

‘도둑공화국: 권력과 재벌의 한판 잔치’는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수사 비화를 글로 옮긴 책이다. 97년 당시 사회부 동료 두사람 (하종대, 김정훈기자)과 함께 쓴 것인데, 그 서두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단순한 가십성 얘기보다는 검찰이나 법원, 정치권 등의 결정과정 등 ‘제대로 된 역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기자로서 역사적인 현장에서 순수한 열정으로 충실한 기록자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으면 한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신상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권력자가 권좌에 있을 때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한다는 오기가 발동하기도 했다. 권력자가 권좌에 있을 때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그가 물러나거나 힘을 잃게 되면 사정없이 물어 뜯는 ‘하이에나’언론이 돼서는 안된다.”

사회에는 갖가지 부정과 어두움이 산재해 있다. 그런 부조리를 캐내어 글로 써내는 것이 기자의 임무라는 것이 부담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바로 그것이 직업이라는 점이 새삼 매력적이고 힘있게 느껴진다. 사실, 누구나 살다가 정의롭지 못하고 비윤리적인 일들을 겪지만, 그것을 비판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누구한테 어떻게 어디에 호소를 해야할지도 모르고, 당장 눈앞에 닥친 자신의 일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기자의 본분이 사회의 감시와 비판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자라는 직업의 매력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양기대 기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박소라 /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sora@kpf.or.kr